

수필이 있는 풍경사진



권영주
하트스캔 심장내과 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1 보름달의 미소

우리 인류는 달과 친하다. 캄캄한 밤의 풍경아래 밝고 등근 달빛은 우리들 가슴속에 광명의 빛을 선물하면서 시적인 감성을 솟아나게 한다. 밤의 어두움은 모든 생물들에게 휴식과 안정을 바라고 있으면서 내일 활동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활력을 축적하고 예비해주는 시간이다.

우리인간들은 전기적인 힘으로 밤에도 불을 밝혀 한낮과 같은 밝은 환경 속에 생활하도록 유도한다. 인간 문명이 발전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치면 해로움이 찾아올 뿐이다. 도심 속 불빛 속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떠오른 저 보름달을 보라! 미소를 지으면서 또 한 번 밤의 빛을 비추면서 지구와 형제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 환한 보름달의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2 철쭉과 일출

이른 봄 우리나라 온 산하에는 먼저 진달래꽃이 분홍빛 자태로 나뭇잎 보다 꽃이 먼저 피어난다. 그다음차례는 철쭉이다. 철쭉은 진달래 꽃잎보다 다소 더 두껍고 꽃과 나뭇잎이 함께 핀다. 주로 선명한 붉은색을 자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색깔의 철쭉꽃이 고운 자태로 피어난다.

그러나, 철쭉 꽃잎을 먹을 수는 없다.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봄이면 황매산은 온통 철쭉꽃으로 뒤 덮여있는 장관을 연출한다. 해뜨기전 철쭉에 둘러싸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신비로움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 같다. 나와 철쭉은 한 몸과 한마음이 되어 떠오르는 햇님을 기다리고 있다.